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범죄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시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 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나눔성금 보내주신 분

이창근 10,000원 윤선애 10,000원  
안현정 10,000원 조근영 1,000원  
총 누적금액 41,624,050원

도봉서원복지관, 희망나눔 바자회

이웃들을 위한 장터 한마당. 복지관에서 벌어진 조그만 장터였지만 의류나 장난감 등 제법 요긴한 물품들이 갖춰져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았다.

서울 도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은 7월 6일~7일 복지관 1층에서 '희망나눔 미니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진행된 바자회 수익금 86만 500원은 도봉서원복지관에서 저소득 와상장애인에게 실시하고 있는 정서지원프로그램 '손에 닿는 세상'의 사업비로 충당될 예정이다.

김강진 기자

백혈병 투병 민수를 응원해 주세요

3차 항암치료 힘겹게 끝내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일까?

7월 11일, 한 달여 만에 다시 민수(4)를 찾았다. 민수는 부산대병원 일인 병실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1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만 해도 희망적인 전망을 했는데, 독한 항암 주사를 맞은 후 민수의 백혈구 수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감염 위험 때문에 4일전 급히 일인 병실로 옮겨졌다.

일반적인 경우 1, 2차 항암치료에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민수의 경우는 3차 항암제 투여가 끝나고 백혈구 수치를 올리는 주사를 아홉 번째 맞고 있지만 이렇다할 변화를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었다.

민수의 항암 치료에 길어지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 둘 퇴원하고 민수만 남겨졌다.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민수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치를 되찾기는커녕 20, 30까지 떨어져 주의를 긴장시켰다. 혈소판수치마저 낮아지면서 한번 피가 나면 잘 멎지 않았고, 항암제 투여, 백혈구 높이는 주사, 혈소판 수혈 등이 반복되는 동안 민수의 입은 헐고, 고통을 참느라 깨문 입술에 고인 피는 하루에도 몇 번씩 알코올 솜으로 닦아내야 했다. 독한 항암제가 장을 꼬이게 만들면서 민수는 변을 보는데 끈란을 겪었고 엉덩이는 헐어서 앉지도 못하게 돼 버렸다.



투병생활 중인 민수는 하루하루가 힘들다.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응원해주고 지켜봐주는 이들과 더불어 민수가 하루 빨리 일어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나 민수아버지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다. "독한 항암제도 잘 견뎌내고, 또 백혈구 수치가 20밖에 안되는데도 백혈병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고열도 없는 걸 보면 민수는 운이 좋은가 봐요. 그러나 꼭 낫겠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민수 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믿음과 민수를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이 통한 듯, 며칠 뒤부터 민수의 상태는 호전되기 시작했다. 7월 21일에는 입원 3달여 만에 3일간의 퇴원이 이뤄졌다. 백혈구 수치는 7천 정도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혈소판, 혈색소 수치가 턱없이 낮은 상태에서 시도된 퇴원. 아직 안심은 이르지만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간 가족들의 기쁨

은 컸다.

지금 민수는 3차 항암 치료를 끝내고 백혈구 수치 안정과 혈소판, 혈색소 수치를 올리기 위한 주사 투여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상태를 지켜본 후, 골수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민수의 부모에게 치료비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 아들을 지켜보는 일이 형벌처럼 남겨졌다. 완치를 향한 민수의 힘겨운 투병에 마음을 모아야 할 때다. 누구보다 마음의 묘용을 잘 아는 우리들에게.

도움질 곳: 927-12-838466(총합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글: 사친/부산-천미희 기자

교계 복지관 하나로 통한다

부다피아, 인터넷 '복지 네트워크' 구축

"복지계 소식을 한 자리에서 볼 수는 없을까?"

복지계 뉴스와 봉사활동, 성금 기탁 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소식을 한 번에 접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없다는데 아쉬움을 느꼈을 것이다. 복지 소식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도록 본사 부다피아가 7월 7일 '복지네트워크'(www.buddhapia.com/welfare)의 문을

열었다.

부다피아가 '복지네트워크'는 불교계 복지관들을 하나로 이어 이용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복지계의 정보와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게시판에서는 복지 이슈별, 대상자별로 나눠 관심분야를 손쉽게 만들어볼 수 있도록 했다. 불교복지관의 진정한 네트워크를 주도할

'우리단체 이력행사' 게시판은 현재 부다피아가에서 진행 중인 '무료 웹 빌더' 사업과 함께 진행돼 각 복지관에서 부다피아가 홈페이지 소식이 한꺼번에 검색 가능해진다.

'복지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관의 소식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열린마당'에서는 이웃들의 따뜻한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뤄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부다피아가 사회복지팀은 '복지네트워크'를 통해 추후 복지관련 정기간행자료와 학술 자료를 계속 보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02)2004-8285

김강진 기자

자비의 집 침술봉사회

"얼굴만 봐도 건강 바로 알지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강북구 미아6동 '자비의 집(원장 이금현)'은 금요일에 유난히 붐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까닭이다. 아침부터 찾아온 지역주민들로 3층 사무실은 어느새 만원이다.

주민들이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드는 주인공들은 벌써 13년째 '자비의 집'을 찾는 침술봉사자들이다. 7월 15일, 침술봉사자들은 꼼꼼하게 환자 차트를 챙기는 것으로 '진료'를 시작한다. 진료카드에는 아픈 사람들의 증세는 물론이고 시술자들의 그날 그날도 담겨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인 김동주(80) 거사는 한 아저머니에게 "살이 많이 빠졌다"며 말을 건넨다. 이제 '자비의 집'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만 해도 무슨 병을 앓아왔고, 어디가 안 좋은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단박에 알아챈다. 오랜 침술봉사 경험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오랫동안 안 봐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금요일마다 침 맞으러 와요. 감사하지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

다 좋은 곳이 없어요. 잘 해주시는데다 무료거든요."

6년 전 중풍에 걸리게 된 김주래(53)씨는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치료비가 모자라 그만두게 됐다고 한다. 김씨에 따르면 '자비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층이라 명예에 걸려도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는 진료기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나마 현상유지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침술 한 번이 절실하거든요."

김씨의 마비된 왼쪽 몸을 어루만지며 침을 놓아주던 침술봉사회 팀장을 강재구(80) 거사는 지치고 기쁠 곳 없는 사람들의 베품이 되고 싶어 고령에도 불구하고 봉사를 그만 둘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이들에게는 어려운 이웃이 '식구' 들인 셈이다.

맨 처음 마음 그대로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침술봉사자 이수근(65) 보살은 "나이는 들었지만 봉사가 운명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침술봉사에 매진할 뜻을 단정히 전한다.

글: 사진-김강진 기자



침 하나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는 '자비의 집' 침술봉사자들. 7월 15일에도 침봉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자비의 집'이 북적였다.

침구와 부항기 보내주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침술을 펼치고 있는 자비의 집 침술봉사단은 자비의 집에 필요한 물품으로 생필품과 식료품을 먼저 꼽았다. 그러나 자비의 집 이금현 원장은 "항상 침구를 유지

하면서 쓰고 있는 침구와 부항기가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침술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02)945-4200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면 유망**  
출장수맥감정비 30만원 개업 또는 부업 노후 대책도 인정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

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만 가지고 있어수맥감정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훑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있으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 것이다. 책의 입자과정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미세한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수맥파 차단 카드**  
아침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가족 건강위해 인기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 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을 신축할 때 수맥파를 차단하는 동판을 깔다. 병상 밑에서 발생하는 수맥파로 인해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수맥파는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중증질환과 중풍, 치매, 만성피로, 수면부족, 오심, 집중력 저하,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수맥생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정리를 못하고 짜증을 낸다. 수맥파가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발표가 있따르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수맥파 차단카드 설치 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러시아 과학자가 발견한 멜토네너지는 모든 유해파를 중화시키는것으로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의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켜 20평APT나 주택은 완벽하게 차단된다. 수맥파차단카드는 6개월에 한번씩 햇빛에 3시간 중전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대단히 가벼워진다. 가격7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받아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02)741-4477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불경에 입각해 부처님법구제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들어진 영험의 관세음보살 부자지갑은 관세음보살 수진연 영험중 1번으로 관세음보살 여주 수진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 금은 보화가 들어오며 땅을 소유하고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는다는 영험을 담고 있다. 관세음보살 부자지갑은 내부구조가 일반지갑에 비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섬세하게 꾸며져 있다. 지갑앞면에는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고 영험의 불력으로 금은 보화가 들어오게 하는 관세음보살 여주 수진연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부착해 자신감을 갖게했다. 여성용장지갑에는 귀속장신구 지퍼주머니가 내부에 만들어져 있고 신분증을 꽂는 창 3개와 신용카드 11개를 꽂을 수 있으며 지갑 뒷면에는 동전 지퍼주머니가 별도로 있는 부자지갑으로 안과 밖이 고급 천연소가죽으로 최고급 지갑이다. 축원불공을 마치고 판매하고 있는 관세음 부자지갑은 출시 100일도 안되어 신비의 영험이 나타나, 안배

■문의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